

【일반논문】

## 1950년대 북한의 두 ‘평화의 마음’\*

김태경 (제1저자, 북한대학원대)

이우영 (교신저자, 북한대학원대)

구갑우 (공저자, 북한대학원대)

### 국문요약

본 연구는 1950년대 북한 사회가 평화를 상상하고 발화하는 데 어떤 다양한 담론들이 존재했는가, 특히 모순적인 논리들이 ‘평화’의 이름으로 공존했던 담론의 복수성을 사회주의 문화 건설을 담당한 작가, 문예 인텔리들의 텍스트를 통해 탐색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단일한 위로부터의 논의나 실천에 귀결되지 않는, 1950년대 북한 사회의 복합적인 ‘평화의 마음’에 다가가고자 한다. 1950년대 북한의 ‘평화의 마음’이 갖는 다양성을 조명하면서 본 연구는 북한 문예계의 평화 담론/실천이 어떤 국제적 소통, 교류의 문맥 속에서 ‘마음체계’의 일부를 형성했는가에 초점을 맞춘다. 본 연구는 크게 두 갈래의 평화 재현을 보이고, 서로 다른 결의 재현과 관련된 행위자적 측면, 즉 문예 인텔리의 조직적 변화도 다룰 것이다. 1950년대 평화 주제를 둘러싼 문학적 재현 및 문학계의 조직에 대한 규명은 전후 사회주의 체제형성기 북한 사회의 다양한 대안적 논리의 역학관계를 드러냄으로써 북한의 ‘평화의 마음’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이해하고, 궁극적으로 남북한 ‘마음체계’ 통합을 필요로 할 한반도 평화의 현재적 탐색에 통찰을 제공할 것이다.

---

\* 본 논문은 2018년 3월 29일 북한연구학회 춘계학술회의에서 발표된 “1950년대 북한 문학의 평화 재현”을 발전시킨 것이다. 선행연구와 뜻깊은 토론으로 논문을 진전시키는 데 큰 도움을 주신 한국외국어대학교 김태우 교수님과 본 논문에 꼼꼼한 평가와 중요한 제언들을 해주신 세 분의 익명의 심사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본 논문은 2017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다(NRF-2017S1A3A2065782).

주제어: 평화의 마음, 마음체계, 세계평화옹호운동, 통일운동, 북한 문학, 조선화

## I. 문제제기: 두 개의 평화의 재현

1959년 8월 7일자 『문학신문』은 “인류의 머리 우에 평화를!”이라는 제목의 짧은 기사를 실었다.<sup>1)</sup> 소련 잡지 “〈쓰메나〉” 9호에 실린 “웨. 쉘첸꼬”가 쓴 〈일본의 하늘 아래서〉라는 표제의 기행문에서 발췌한 이 기사는 히로시마 원폭 투하 이후 비극에 대한 단상과 함께 ‘보통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일본과 소련의 전후 친선을 다루고 있다. 쉘첸꼬의 기행문은 전세계적 차원의 평화옹호운동의 맥락에서 이뤄진 소련 청년위원회의 히로시마를 비롯한 일본 주요 도시, 지역 방문 여정을 담으며 일본 청년들과 소련 청년방문단 간 친선교류와 평화를 위한 공동 연대, 일본 점령 미군에 대한 반대를 핵심 내용으로 한다.<sup>2)</sup> 그 중 『문학신문』에 발췌, 번역된 부분은 히로시마의 원폭 이후 고통상으로, 대표적으로 피폭 피해자인 “사사키 사다코” 어린이의 이야기와 이를 바탕으로 모금 건립된 “원자탄에 희생된 어린이들의 기념비”<sup>3)</sup>, 그리고 일본 청년단 대표의 평화에 대한 일본 인민의 염원과 소련 인민과의 친선 강화의 의지를 담은 다음의 발언이다.

- 
- 1) 웨. 쉘첸꼬, “인류의 머리 우에 평화를!,” 『문학신문』, 1959년 8월 7일, p. 4.
  - 2) В.ШЕВЧКЕКО, ПОД НЕБОМ ЯПОНИИ, СМЕНА, №767. 현재 『스메나』 잡지는 1924년 호부터 전권이 인터넷상에서 열람가능하다. 관련 정보와 원문을 제공해주신 러시아국립인문대 박사과정 이종현씨와 번역에 도움을 준 북한대학원대 조교 오세준씨에 감사를 드린다.
  - 3) 『문학신문』 기사는 『스메나』 잡지에 실린 히로시마 기념비 사진을 같이 실고 있다.

〈우리는 원자 폭탄이 아니라 행복을 이야기와 친선을 평화의 염원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 쓰련의 벼들을 맞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한다. 우리는 쓰련이 시종일관 그리고 결정적으로 원자 및 열핵 무기의 금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우리는 또한 우리 또래의 쏘베트 벼들이 지난 전쟁에서 적지 않은 슬픔을 겪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호상 잘 이해하며 손을 맞잡고 평화를 위하여 싸우고 있는 것이다...〉

“세이넨단(청년단) 지부 총비서 모리카와”의 발언이 담긴 이 기사는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 원폭 투하, 8월 15일 조선 해방 이후 14년이 흐른 ‘(북)조선’에서 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이자 자국 식민통치의 제국인 일본의 전후 평화운동을 어떻게 접하고 있었는지 보여준다. 한 소련 청년위원회 위원장의 기행문을 통해 수용된 전후 일본의 반핵 반전운동의 에피소드는 1960년대 후반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과 더불어 반제국주의, 탈식민 해방투쟁이라는 하나의 기치로 평화와 통일에 대한 서사가 규범화되기 이전에, 평화에 대한 희구라는 목표 아래, 구제국의 전후 평화운동도 포괄하는 폭넓은 담론들이 북한에 존재했음을 드러낸다. 1960년 한국의 4.19,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1960년대 한일안보조약 체결반대운동과 베트남전쟁을 거치며 북한에서는 평화를 재현하는 일련의 방식이 점진적으로 구축되었다. 그러나 평화를 이해하고 실현할 데 대한 특정한 방식의 재현은 특히 1950년대 평화를 재현하는 복수의 방법들 사이의 활발한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1950년대 북한 사회가 평화를 상상하고 발화하는 데서 어떤 다양한 담론들이 존재했는지 확인하고, 특히 실제로 상충하기까지 하는 논리들이 ‘평화’의 이름으로 공존, 상호작용했던 담론의 복수성을 문화 건설을 담당한 작가, 문예 인텔리들의 텍스트를 통해 드러내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단일한 위로부터의 논의나 실천으로 귀결되지 않는, 복합적인 1950년대 북한 사회의 ‘평화의 마음’에 다가가고자

한다. 1950년대 북한의 ‘평화의 마음’이 갖는 다양성을 조명하면서 본 연구는 특히 이 시기 북한 문예계의 평화 담론/실천이 어떤 국제적 소통과 교류의 문맥 속에서 이러한 ‘마음체계’의 부분을 형성했는지에 초점을 맞춘다.<sup>4)</sup>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크게 두 갈래의 ‘평화의 마음’과 관련된 재현을 보이고, 더불어 그러한 서로 다른 결의 재현과 관련된 행위자적 측면, 즉 문예 인텔리의 조직적 변화도 다룰 것이다. 1950년대 평화 주제를 둘러싼 문학적 재현 및 문학계의 조직에 대한 본 연구의 규명은 한국전쟁 직후 사회주의 체제형성기 북한 사회의 다양한 대안적 논리의 역학관계의 일면을 드러냄으로써 북한의 ‘평화의 마음’이 이 시기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보이고, 궁극적으로 남북한 ‘마음체계’ 통합을 필요로 할 한반도에서의 현재적 ‘평화’의 탐색에도 유의미한 통찰을 제공할 것이다.

1950년대 북한 문학에 관한 기존연구는 ‘평화’가 어떻게 상상되고 재현되었는가의 문제와 연관해 보다 넓은 국제정치적 맥락의 소련과 동유럽

4) ‘마음’은 “지, 정, 의를 모두 포괄하는 능동적인 심적 활동”으로, ‘마음체계’에 대해서는 “주체를 만들어내는 담론적 비담론적 네트워크”라는 구갑우의 정의를 따른다. 구갑우, “북한 ‘핵 담론’의 원형과 마음체계, 1947-1964년,” 『현대북한연구』, 17권 1호 (2014), p. 204. 본 연구는 북한의 ‘마음체계’의 탐색이 북한 사회 구성원들이 선택하고 행동하는 원인이 되는 정체성, 집합 심리의 구조화된 질서에 대한 해석을 통해, 북한 사회에 대한 보다 나은 이해와 그를 바탕으로 한 상호작용에 필수적이라는 가정을 공유한다. 이우영 외 공저, 『분단된 마음의 지도』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2017). ‘평화의 마음’은 북한 ‘마음체계’의 일부 분으로, 그 연구는 평화에 대한 정의, 평화/비평화적 현실에 대한 원인 분석, 그 궁극적 상(像) 및 실현을 위한 전략 전술 등 ‘평화’를 내용적으로 구성하는 요소들과 함께, 이를 가능하게 하는 행위자, 제도적 배열, 대내외 역사적, 정치적 맥락의 차원에 대한 탐색을 필요로 한다. 북한 사회의 ‘평화의 마음’에 대한 기존연구로는 1962년 숙청되기까지 북한 문예계를 대표한 작가 한설야가 세계 평화옹호운동의 북한 대표로 활동했던 1949년을 중심으로 정부 대변인으로서, 그리고 작가로서 한설야의 복합적인 ‘평화의 마음’을 탐색한 연구가 존재한다. 구갑우, “북한 소설가 한설야의 ‘평화’의 마음(1), 1949년,” 『현대북한연구』, 18권 3호 (2015).

과의 사회주의 친선을 다루지 않았다.<sup>5)</sup> 많은 연구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를 당시 문예계의 중요 주제로 보고 다뤄왔지만 북한 문학에 나타난 평화의 개념에 있어 소련과 동유럽에서 전개된 평화운동의 맥락이나 상호작용이 진지하게 다뤄지지는 않았다. 본 연구는 1950년대 북한에서 ‘평화’에 대한 재현의 논리가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특히 그 복수성, 다양성에 초점을 맞춘다. ‘평화’의 다양한 재현은 무엇보다 다른 사회주의 진영과 교류 소통한 평화 담론/실천 속에서 가능했고 다른 사회주의권 담론/실천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한반도적 맥락에 맞게 번역, 변용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1960년대 후반 “당의 유일사상체계”라는 단일한 이데올로기적 기획이 확립되기 이전,<sup>6)</sup> 실질적인 사회경제적 변화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1950년대 북한의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는 격렬한 논쟁, 갈등이 전개되었다.<sup>7)</sup> 북한 문학계 역시 1950년대 중후반 “도식주의 비판”, “부르조

5) 세계적 범위의 평화옹호운동과 1950-1960년대 북한의 평화운동에 미친 영향을 다룬 최근의 역사 연구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김태우, “냉전 초기 사회주의 진영 내부의 전쟁·평화 담론의 충돌과 북한의 한국전쟁 인식 변화,” 『역사와 현실』, 제83호 (2012); “냉전 평화론의 사생아: 소련과 북한의 한국전쟁 ‘복침’ 시나리오 조작의 정치적 배경과 과정,” 『통일인문학』, 64권 (2015); “1948-50년 사회주의진영의 평화론과 평화운동의 동아시아적 수용과 변용: 국가별 사례 비교,” 『동북아문화연구』, 58집 (2019); 정용욱, “6·25전쟁 이전 북한의 평화운동,” 『역사비평』, 106권 (2014a); “6.25 전쟁~1950년대 후반 북한의 평화운동,” 『역사와 현실』, 91권 (2014b). 동유럽과 중국에서 전개된 세계평화옹호운동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을 참조. 역사문제연구소, 『한국전쟁에 대한 11가지 시선』 (서울: 역사비평사, 2010); 청카이(程凱), “평화위원과 정치동원: 1950년의 평화서명운동,” 백원담·임우경, 『‘냉전’ 아시아의 탄생: 신중국과 한국전쟁』 (서울: 문화과학사, 2013).

6) 1960년대 후반 “당의 유일사상체계”의 성립에 대해서는 와다 하루키, 서동만·남기정 역, 『북조선: 유격대국가에서 정규군국가로』 (서울: 돌베개, 2002); 이종석, 『조선로동당 연구: 지도사상과 구조변화를 중심으로』 (서울: 역사비평사, 1995) 참조.

7) 체제형성기 북한의 사회주의건설을 둘러싼 담론과 실천의 역동성, 다양한 대안들을 둘러싼 경쟁과 갈등을 고찰한 연구로는 다음을 참조. 역사문제연구소

아 사상잔재 투쟁”, “수정주의 비판” 과정에서 다양한 논쟁의 장을 형성했다. 본 연구의 대상인 평화의 재현과 관련해서는 당시 소련과 동유럽 인민민주주의 국가들은 물론 탈식민 해방투쟁을 지속하는 제3세계 혁명운동과의 상호작용에 기반한 복수의 대안들이 존재했음을 보일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전쟁 이후 1950년대 북한 문학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인 전쟁과 평화의 주제는 적어도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의미와 재현의 방식을 가졌음을 보인다. 우선 한편으로 평화협정의 체결이 아닌 잠정적인 전투 중지의 상태인 휴전이라는 단서가 전제되기는 하지만, 평화적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필수조건으로서 평화, 즉 모든 종류의 폭력의 중단인 정전을 지지하고 그 중요성을 언급하는 방식이 존재했다. 다른 한편으로 세계적 범위의 제국주의 세력에 대항해 지속적이고 진정한 평화를 수립하기 위해서 여전히 전쟁을 불사할 데 대한 결의를 감추지 않는 평화 재현의 방식이 존재했다. 평화에 대한 전자의 재현은 폭력의 종식을 강조하며 일시적이거나 ‘정의’의 문제를 보류하고 새로운 사회주의 건설로 그 방점을 변화시킴으로써 후자의 재현 방식과는 구별된다. 이는 ‘그들’에 대한 ‘우리’의 근본적인 승리를 선언한 전제 위에 성립한다는 점을 지적해야 하지만, 전자의 평화 재현은 ‘정의’의 문제가 미해결된 상태에서의 휴전을 언제든 희생시킬 수 있다고 보는 관점에서의 평화 재현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질 수 있다는 데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반제국주의 ‘민족해방전쟁’이라는 북한의 관점에서 한국전쟁에서의 전쟁 목표, ‘정의’가 아직 성취되지 않은 과제라는 것을 고려하면, 후자의 평화 재현의 틀을 지속하는 경우에는 논리적으로 또 다른 전쟁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없다. 후자의 평화는 전자에 가까운 비폭력의 지속적 상태라기보다 ‘정의’의 구현을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는 결과, 가치의 의미를 가진다.

---

편, 『1950년대 남북한의 선택과 굴절』 (서울: 역사비평사, 1998).

다음에서는 1950년대 북한의 두 ‘평화의 마음’을 검토한다. 우선 한국 전쟁 이후 북한의 평화 담론/실천에 영향을 준 2차 세계대전 후 세계평화옹호운동의 맥락과 소련 문학에서의 평화적 재현의 측면을 살필 것이다. 다음으로 1950년대 북한 문학에서 전후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서의 평화에 대한 재현, 민족의 독립과 통일에 의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결과로서의 평화에 대한 재현이 공존했음을 살펴볼 것이다. 두 갈래의 평화 재현을 검토하면서 이러한 모순적인 재현들을 가능하게 한 행위자적 배경으로 문예 조직적 차원을 함께 설명한다.

## II. 세계평화옹호운동과 전후 북한 문학

평화를 상상하고 실현할 데 대한 1950년대 북한 문단의 다양한 담론은 2차대전 이후 유럽과 아시아 전역에서 활발히 전개된 세계평화옹호운동의 맥락에서 펼쳐졌다. 전후 세계에서 소련과 인민민주주의 국가들이 자기 진영을 지칭하는 용어로 선점한 ‘평화’와 ‘민주’의 가치는 전쟁으로 폐허가 된 유럽은 물론 냉전기에도 전쟁이 지속한 아시아에서도 강력한 호소력을 발휘했다. 그러나 이 공통의 이상을 통해 사람들이 합의한 바는 지정학적 맥락에 따라 다양했다.<sup>8)</sup> 전후 유럽의 평화운동이 반미, 반전,

8) ‘제국주의 반민주주의 세력’ 대 ‘반제국주의 민주주의 세력’의 틀로 세계를 양분한 세계평화운동은 1947년 9월 성립된 코민포름(Cominform 공산주의정보국)의 ‘두 진영론’의 세계 인식과 결을 같이 한다. 김태우, “냉전 초기 사회주의 진영 내부의 전쟁·평화 담론의 충돌과 북한의 한국전쟁 인식 변화”. 물론 전후 유럽 및 아시아를 포괄한 세계평화운동에는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블록에 한하지 않는 무당파적 세계평화운동의 측면도 존재했다. 평화운동의 폭넓은 확산은 동유럽은 물론 프랑스, 서독 등 서유럽에서도 광범한 호소력으로 전

반핵으로 요약되는 ‘반전평화론’의 담론/실천을 보았다면, 같은 시기 아시아는 탈식민 해방투쟁, 평화를 궁극적으로 쟁취하기 위한 폭력, 전쟁을 긍정하는 ‘해방전쟁론’을 보았다는 점에서 평화 담론은 다양성은 물론 분명한 내적 긴장을 포괄했다.<sup>9)</sup> 한국전쟁 이전부터 북한 매체는 세계평화옹호운동을 대중에게 알리는 한편 이러한 국제적 운동의 맥락에 맞춰 국내 평화운동을 동원 확산하는 데 막대한 노력을 기울였다.<sup>10)</sup> 김태우에 따르면, 스탈린이 아시아의 민족해방투쟁에 앞선 우선순위를 부여한 전후 유럽의 평화옹호운동의 압력은 북한이 선뜻 이해되지 않는 북침시나리오를 공들여 선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무시할 수 없는 범사회주의진영의 맥락이었다.<sup>11)</sup> 정용욱은 세계평화옹호운동과 비교해 북한의 평화옹호운동이 가진 특성을 강조, 북한의 평화옹호운동이 세계평화옹호운동과 민족의 통일운동 사이에서 진동하며 후자로 귀속했음을 보였다.<sup>12)</sup> 즉 북한은 한국전쟁 이전은 물론 전쟁기 세계평화운동의 맥락에서 반핵,

---

개됐고, 한국전쟁을 통해 직전까지 내전을 수행했던 중국에서도 반핵, 반전을 핵심 구호로 하는 평화서명운동이 대중적으로 진행되었다. 청카이, “평화염원과 정치동원: 1950년의 평화서명운동.” 북한에서도 1950년대 후반까지 이러한 범사회주의진영에 국한되지 않는 광범한 세계평화운동의 함의를 강조하기도 했다. 북한의 평화운동 용례에 대해서는 구갑우, “북한 ‘핵 담론’의 원형과 마음 체계, 1947-1964년,” pp. 210~212.

- <sup>9)</sup> 범사회주의 진영 내 유럽과 아시아의 평화 담론의 충돌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전후 미국과 서방진영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스탈린의 ‘평화공존’ 제스처에 대한 2차 국공내전기 마오쩌둥의 해방전쟁론의 갈등을 참고할 수 있다. 김태우, “냉전 초기 사회주의 진영 내부의 전쟁·평화 담론의 충돌과 북한의 한국전쟁 인식 변화.” 전후 유럽과 아시아 지형이 역사적으로 어떤 대비를 보였는가에 대해서는 김학재, “냉전과 ‘열전’의 지역적 기원-유럽과 동아시아 냉전의 비교 역사사회학,” 『사회와역사』, 114권 (2017).
- <sup>10)</sup> 정용욱, “6·25전쟁 이전 북한의 평화운동”.
- <sup>11)</sup> 김태우, “냉전 평화론의 사생아: 소련과 북한의 한국전쟁 ‘북침’ 시나리오 조작의 정치적 배경과 과정”.
- <sup>12)</sup> 정용욱, “6.25 전쟁~1950년대 후반 북한의 평화운동”.



반전을 위한 광범한 서명운동에 인민을 동원하는 한편, 전후에도 세계 평화운동의 맥락 안에서 평화 담론/실천을 지속, 특히 분단된 한반도적 맥락에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운동으로 ‘번역’된 대중운동을 이어갔다.<sup>13)</sup>

본 연구는 세계평화운동의 북한 평화운동에 대한 영향 및 그 한반도적 맥락에서의 통일운동으로의 변용에 대한 기존 연구성과를 토대로, 특히 그동안 전세계적 차원의 평화운동과의 관련 속에서 거의 검토된 바 없는 1950년대 북한 문학계를 중심으로 ‘평화’에 대한 다양한 재현들을 확인한다는 차별성을 가진다. 평화의 문학적 재현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보다 당시 북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당시 무엇을 읽고 그를 바탕으로 세계를 상상하며 그러한 인식, 감정을 토대로 적과 친구, 자신들의 정체성, 역할을 성립했는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는 데 있다. 『로동신문』의 보도 만큼 문예계의 대표격인 문단 조직, 조선작가동맹의 월간 잡지 『조선문학』에 실린 시, 단편, 수필, 평론 등에 집약된 전쟁과 평화의 재현은 독자들에게 당대 국제질서와 북조선의 위치, 미래를 위한 현재적 요구를 인지, 감득하도록 하는 데 영향을 발휘했다.<sup>14)</sup> 당대 사회 여론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텍스트로서 문학적 재현은 다른 한편으로 북한 사회를 구성하는 일부인 동시에 인민을 사회주의 정신으로 교양 개조하는 ‘인간 정신의 기사’(Инженеры человеческих душ)의 역할을 부여받은 작가집단, 문예 인텔리들이 어떤 담론을 국제적 문맥 속에서 전개했는가를 보여준다는 데 의의가 있다.<sup>15)</sup>

13) 구갑우, “북한 ‘핵 담론’의 원형과 마음체계, 1947-1964년”.

14) 당대 독자들의 반향에 대해서는 1950년대 『조선문학』 호에 비정기적이지만 꾸준히 등장하는 독자들의 편지나 독자 모임 소식 등을 통해 가늠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김성수, “사회주의 교양으로서의 독서와 문예지 독자의 위상-북한 『조선문학』 독자란의 역사적 변천과 문화정치적 함의,” 『반교어문연구』, 43권 (2016); 김태경, “북한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조선화(Koreanization)’: 문학에서의 당의 유일사상체계의 역사적 형성,”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5장.

‘냉전 문화’ 연구의 관점에서 황동하는 냉전 초기 소련의 평화운동이 전개된 배경을 소련의 국내 상황과 국제 정세의 상호작용을 통해 분석한다.<sup>16)</sup> 그는 스탈린의 지배가 더 이상 정점에 있지 않았던 ‘말기 스탈린주의 사회’(High Stalinism) 전후 1940년대 말 소련의 국내 정치에 주목을 돌리며,<sup>17)</sup> 이 시기 평화운동, 평화담론이 막대한 피해를 감수하고 얻은, 승전 직후 정상화된 일상에 대한 소련 인민의 기대가 냉전의 시작과 함께 급격히 좌절될 수밖에 없었던 국제 정세 변화를 바탕으로 등장, 국가를 깃터미 속에서 복구건설해야 했던 필요 앞에 인민을 다시 정부 정책에 단결, 순응하게 만드는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한다. 승전 직후 소련 사회의 “자유화 효과”, 즉 전후 평화와 정상화를 희망하며 모든 것이 개선되고 생활이 나아질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이 존재하다 전쟁 기간 동안 계

- 
- 15) 스탈린은 1932년 10월 26일 고리키의 집에서 가진 소비에트 작가들과의 간담회에서 작가들의 역할을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간 영혼의 엔지니어”라는 표현을 썼다. 이 간담회는 이후 기존의 다양한 문예조직을 통폐합, 유일한 공식 작가 조직으로 정립된 소련작가동맹의 발단으로 알려졌다. Piotr Fast, *Ideology, Aesthetics, Literary History: Socialist Realism and its Others* (Peter Lang: Frankfurt am Main, 1999). 북한 문학계는 스탈린의 이 표현을 “인간 정신의 기사,” “정신의 기사”로 번역, 1950년대 문단에서 광범하게 사용했다.
- 16) 냉전문화 연구란 냉전이 “정치, 군사, 이데올로기적 대립에 그치지 않고 고위 정치로부터 경제, 문화 등 일상생활의 전 영역, 정치인들의 행동에서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의 개인적 심리까지 거의 모든 인간사를 포괄”한다고 정의하는 데 근거한다. 황동하, “냉전에 대한 러시아의 반응-평화를 투쟁의 언어로 만들기,” 『역사연구』 34호 (2018), p. 222. 냉전문화 연구의 대표적 연구에 대해서는 황동하, “냉전 초(1947-1953년) 소련 포스터에 나타난 ‘평화’ 이미지,” 『역사학보』 238호 (2018), p. 68, 각주 2 참조; 냉전문화 연구와 관련된 새로운 소련사 연구에 대해서는 노경덕, “냉전사와 소련연구,” 『역사비평』 101호 (2012).
- 17) 2차 대전 직후 소련은 테러와 통제로만 위협당한 사회라기보다는 다양하고 모순적인 양상을 보였는데, ‘말기 스탈린주의 사회’는 전쟁으로 파괴된 국가를 다시 건설할 필요, 전시 대량의 사상자에 따른 인구학적 구성의 변화, 소련인의 국가에 대한 태도 및 정서 변화 등이 특징적이다. 황동하, “냉전에 대한 러시아의 반응-평화를 투쟁의 언어로 만들기,” pp. 221~222, 특히 각주 13.

속 지연될 뿐이었던 이러한 일상의 정상성에 대한 기대가 좌절되는 순간, 사회적 불만 표출 및 외부의 압력에 대한 우려, 전쟁 공포가 터져나왔다.<sup>18)</sup> 미국의 핵 독점 국면에서 소련은 안보적 불균형에 따른 위협인식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소련인들이 평화와 정상상태를 염원했다면, 스탈린의 평화에 대한 기대는 '현상 유지', 즉 전후 질서에서 서방과의 협력의 지속하고 영토적 안전이 지켜질 데 대한 믿음이었다.<sup>19)</sup> 그러나 스탈린의 평화적 국제질서에 대한 기대는 1947년 6월 마셜 플랜 이후 미소 관계가 결정적으로 변화하면서 실현 불가능하게 되었고 양분된 냉전 질서에서 소련인들의 임무는 새로운 세계대전을 예방하고 미국, 전쟁 교사자들의 침략을 무력화하는 것, 그를 위해 소련의 복구건설을 위한 어떤 부담도 불사하는 것이 되었다.<sup>20)</sup>

한편 냉전 초 평화 담론, 운동의 소련 사회에서의 기능, 즉 전후 평화적 건설에로의 인민적 동원의 정당화 및 사회적 요구, 비판의 통제는 스탈린 사후 '해방'을 통해 소련 문예계에서도 역사적 재평가 및 새로운 재

18) 국부의 약 30%가 사라지고 2,660만 명의 사망자를 낸 소비에트에서 참전용사는 알려진 1,100만 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Elena Zubkova, trans. and ed., Hugh Ragsdale, *Russia After the War: Hopes, Illusions, and Disappointments, 1945-1957* (London & New York, Routledge, 1998), p. 20, 황동하, 위의 글, p. 226에서 재인용. 1946-47년 지역적으로 나타난 기근을 거쳐 배급 등 경제적 불안정이 지속되자 기대와 현실의 곤경 사이 간극에 따른 불만 및 사회적 범죄가 증가했는데, 범죄자의 68%를 귀환 병사가 차지했다. 황동하, 위의 글, p. 229. 당시 사회적 불안정을 드러내는 또 다른 주된 지표는 소련에 대한 전쟁 소문이 2차 대전 종전 직후 1945-47년 가장 두드러졌다는 것인데, 전쟁 기간부터 동맹국 미 영에 대한 불신은 이제 옛 동맹국의 침공 위협에 대한 공포로 나타났다. 황동하, 위의 글, p. 233, 230.

19) Eduard Mark, "Revolution by Degrees: Stalin's National-Front Strategy for Europe, 1941-1947," Working Paper No. 31,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February 2001), p. 42, 8, 황동하, 위의 글, p. 234에서 재인용.

20) 황동하, 위의 글, p. 239, 241.

현들이 시도되면서 반전되었다. 이를 소비에트 전쟁문학 장르적 차원에서 살펴본다면, 1950년대 중후반 탈스탈린주의 시기 전쟁에 대한 재현은 과거 억압, 배제되었던 역사적 사실들에 대한 조명과 성찰이 이뤄지고 극도로 낭만화된 영웅적 형상보다 역사적 '진실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배가되었다.<sup>21)</sup> 흥미로운 것은 소비에트의 2차대전 문학에서 흐루쇼프 집권기인 '해빙기', 1953-1964년에 생산된 작품들에서 보이는 경향이 동 시기 북한의 전쟁 테마 재현에서도 일정하게 나타나는 흐름이 존재했다는 점이다.<sup>22)</sup> 대표적으로 전쟁 직후 1950년대 중반 『조선문학』은 전쟁 테마

21) 권철근, “소비에트 전쟁문학의 흐름과 사회주의 리얼리즘,” 『외국문학연구』 8호 (2001).

22) 여기서 우선 주목할 것은 한국전쟁 이후 북한 문학이 소련과 인민민주주의 국가의 사회주의 리얼리즘 모델을 문예 생산을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채택하고 자체의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구축하는 과정에 당대 전개된 국제 사회주의진영의 사회주의 리얼리즘 논쟁 역시 부분적으로 수용했다는 점이다.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조선화”(Koreanization)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선진’ 사회주의 문예계의 ‘원형’은 과거의 문학적 관습과 언어, 고전을 재평가하고 내용과 형식의 새로운 방향을 확립하며 독자 대중 뿐 아니라 작가 조직을 구성하는 데 이르기까지 광범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스탈린 사후 소련과 동유럽에서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방향에 관한 당대 논쟁이 어떻게 수용되었는가의 문제는 북한 문학이 국내외 정치적 맥락에서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그들의 방식으로 다변화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1954-1956년 『조선문학』은 다른 사회주의, 인민민주주의 문학에 관한 뉴스를 주로 취급한 “세계 문학 소식” 지면에서 1954년 12월 제2차 소련작가대회를 시작으로 사회주의 진영의 연이은 작가대회 의제와 핵심 내용을 소개했다. 2차 소련작가회의는 해빙기 변화된 소련 문예계의 문제의식과 창작방법 관련 다양한 논쟁을 포괄했고 북한 문학계는 다른 사회주의, 인민민주주의 문예계와 마찬가지로 큰 틀에서 소련작가회의 정신을 공유하는 2차 조선작가대회를 1956년 10월에 열었다. 그러나 국제 사회주의권 문예계의 ‘해빙’ 담론/실천은 조선작가대회 및 전후 실천에 있어 “수정주의” 경향에 대한 선제적 비판을 포함해 쟁점을 선별적으로 다룬 일련의 신중한 평론들에 따라 관리되었다. 2차 조선작가대회에 대해서는 오성호, “제2차 조선작가대회와 전후 북한문학 - 한철야의 보고를 중심으로,” 『배달말』, 40권 (2007); 김태경, “제2차 조선작가대회와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조선화(Koreanization)”의 시작,” 『문화와

의 재현과 관련해 당대 소련 문예계의 전쟁 문학 관련 담론을 의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상호연관된 두 편의 번역 기사와 평론을 싣고 있다.<sup>23)</sup> “문학에 있어서의 전쟁 쟁마”는 우선 1955년 5월 27일부터 31일까지 모스크바에서 열린 쏘베트 작가 동맹 주최 “군사-예술적 문학 발전의 제 문제를 토의하는 회의” 소식을 다루면서 특히 기존 전쟁문학에 대한 새로운 비판을 다루고 있어 특징적이다.<sup>24)</sup> 신동철의 평론은 또한 이 비판을 수용하며 다음과 같이 부연한다.

작년에 쏘련에서 전 련맹 군사 문학에 관한 협의회가 있었다. 그 협의회에서 진술한 장르별 보고 요지는 이미 알려졌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강조하기 위하여 <크고도 고상한 쟁마>라는 보고에서 중장 싸질로브가 지적인 대목을 인용하겠다. ... 이상 인용문에서 해명된 바와 같이 위대한 력사적 서사시적 주제를 취급함에 있어서 사실을 외곡하여서는 안된다는 데로부터 군사 문학을 생각해야 하겠다. ... 다음으로 갈등 문제이다. ... 한때 어떤 동무는 갈등이 없는 작품도 있을 수 있다고까지 생각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이런 기우는 이미 여지없이 격파된 무갈등론의 요설의 독에 감연되었다는 것을 폭로할 따름이다.<sup>25)</sup>

정치』, 4권 4호 (2017).

23) 저자불명, “문학에 있어서의 전쟁 쟁마,” 『세계문학소식』, 『조선문학』, 1955년 8월호, pp. 210~215; 신동철, “작가와 군사적 주제,” 『조선문학』, 1956년 2월호.

24) “그러나 쏘베트의 일부 작가들은 전쟁 첫 시기의 난관들을 덮어버리고, 1941년의 우리의 오유들과 오산들을 함구무언하거나 적게 말하였다. 더욱이 빼르웬 쟁브의 장편 <어린 시절로부터 있는 영광>의 주인공들인 라구노브와 슈왈로브 장군, 부벤노브의 <벗나무>에 나오는 보로진 장군의 대화들 속에서는 전쟁 력사가 공공연히 외곡되었다. 군사-예술적 산문학은 또 하나의 유해한 경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원수들이 체통만 크고 실속 없는 그 어떤 미물인 것처럼 독자들에게 보여 주려는 태도이다. 나는 그것으로부터 어떤 손실이 나타나는지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저자불명, “문학에 있어서의 전쟁 쟁마,” p. 214.

25) 신동철, “작가와 군사적 주제,” pp. 166~167.

두 인용은 모두 동 시기 소련 전쟁문학에 대한 반성과 역사적 재평가를 반영한다. 전후 세계평화운동의 맥락에서 보면, 이러한 전쟁문학의 성찰로 나타나는 평화 재현에서의 변화는 전쟁 종식을 바탕으로 그 상처를 치유하고 건설에 초점을 맞춰야 할 필요에 부응하고 지난 전쟁의 기록, 기억이 지나치게 이념적 정당화에 매몰된 데 대한 균형을 맞추는 노력을 보여주며, 특히 소련 문예계에서는 탈스탈린주의적 ‘해빙’을 통해 금기시되던 역사적 재조명이 가능했다는 의미가 있다.<sup>26)</sup> 북한 문예계에서의 이러한 소련 해빙기 문예계 담론의 수용은 1950년대 후반 한반도적 맥락에서 통일운동과 해방투쟁을 강조하면서 약화된다.<sup>27)</sup> 다음 장들에서는 사회주의 건설의 전제조건으로 정전으로서의 평화를 그리며, 평화적 사회주의 건설과 이를 위한 사회주의 친선을 강조하는 재현, 다른 한편으로 폭력의 일시적 중지상태보다 궁극적 문제해결의 결과, 즉 탈식민 해방과 통일의 성취를 통한 평화를 강조하는 재현의 두 스펙트럼을 살펴본다.

26) 2차 조선작가대회에서 한효에 대한 비판에 특히 참전용사 출신 군인 작가들의 활약이 두드러진다는 점은 특히 눈길은 끈다. 이 점은 소비에트 전쟁문학사와 비교해서 주목할 만한데, 특히 권철근이 지적인 3기에 해당하는 ‘해빙기’의 역사적 재평가 및 성찰이 이들 참전군인들의 직접적 작품창작과 연관이 있었다는 점이 비교적 시각에서 흥미롭다.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지만, 이 단계에서는 다음을 지적할 수 있다. 한효에 대한 비판에서 참전군인들의 역할은 이중적이다. 군인-작가들은 ‘해빙기’ 소련에서처럼 직접 체험에 근거해 도식주의적 창작에 대한 비판을 수행하면서도 전쟁 직후 상황에서 전쟁 경험 및 영웅의 혁명적 낭만주의적 재현, 이데올로기적 입장을 강조했다.

27) 권철근의 분류상 소비에트 전쟁문학 1-2기(내전문학, 2차대전 문학)에 특징적인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원칙적 명제, 혁명과 전쟁의 정당화로 회귀하는 것이다.

### Ⅲ. 정전으로서 평화 : 사회주의 친선과 평화적 사회주의건설

한국전쟁 이후 북한 문학계는 전쟁의 역사적 경험을 정당화하는 호전적인 전쟁기 창작에서부터 다른 사회주의진영 국가들과 공유한 ‘국제평화옹호운동’의 깃발 아래 진행한 담론과 실천, 전후 평화적 사회주의건설에 대한 희망적 비전과 사회주의 친선을 노래한 작품들에 이르기까지 ‘평화’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전개된 공간이었다. 평화 재현을 둘러싼 복잡성은 북한의 전후 사회주의건설이 위치한 복잡한 국제정치적 맥락, 북한이 이를 배경으로 점진적으로 발전시킨 외부적 변화에 대한 대응과정과 관련된다.<sup>28)</sup>

#### 1. 근대인이 공유하는 역사적 경험으로서 전쟁 : 세계사적 맥락에 한국전쟁 위치짓기

한국전쟁 이후 북한 문학에서 평화는 어떻게 서술되고 표현되었는가? “평화”는 1950년대 번역 문학과 그에 연계된 평론들에서 일관되게 등장한 가장 중요한 주제였다. 국제평화옹호운동의 확산과 심화를 국가적 차

28) 북한의 평화 담론/실천의 복수성을 드러내는 데 앞서 그 원형, 맥락이 되는 소련의 평화 담론/실천 자체가 가지는 다양성에 대해서 지적할 필요가 있다. II.에서 지적한 ‘해빙기’ 소련 전쟁문학에서의 역사적 재평가 사례에서 보듯 소련의 평화 재현의 역사적 변화와 다양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전쟁 직후 북한의 평화 재현의 복잡성을 고려하는 본 연구의 범위상 여기서는 특히 1950년대 중반 이후 소련의 평화 재현의 담론적 맥락에서 북한의 평화 재현들이 보이는 수렴/분기에 초점을 맞춘다. 소련의 평화 재현 자체가 가지는 다양성과 관련해 날카로운 지적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자께 감사드린다.

원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한 1950년대의 북한에서 생활한 독자라면, 전쟁 기간 연일 『로동신문』에 보도된 국제 평화상과 그 수상자들의 활동들을 익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한국전쟁 전, 전쟁기 세계평화운동 수용의 연장선상에서 『조선문학』은 1954-1955년 지속해서 스탈린평화상 수상자, 세계평화이사회가 수여하는 국제평화상 수상자에 대한 편집부 소개와 더불어 이들의 주요 작품 일부를 번역 출판했다.<sup>29)</sup> 편집부의 소개와 번역을 통해 북한 독자들은 국제적으로 저명한 작가의 작품과 삶을 함께 즐길 수 있었다.<sup>30)</sup> 평화상 수상자들의 국적은 소련에 국한되지 않고 서구와 동유럽, 심지어 미국도 포함되었다. 국제 평화상 수상자들에 대한 일련의 소개와 번역 노력은 작가동맹의 주도하에 “평화”의 주제가 진지하게 다뤄졌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또한 1950년대 『조선문학』은 한국전쟁과 전후 재건에 관한 다른 사회주의 국가 작가들의 수필이나 시들을 다수 게재했다. 이와 함께 북한 작가들이 다른 사회주의, 인민민주주의 국가들을 방문하고 그 경험에 기초해 창작한 사회주의 친선에 대한 작품들을 출판했다. 북한의 작가들과 그들의 사회주의 형제 작가들의 논의들은 전쟁과 평화의 주제가 1950년대 북한 문학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재현되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이들의 평화 재현에서 첫 번째로 관심을 끄는 특징은 세계대전의 경험과 서사에서 형언할 수 없는 난관에 끈질기게 대항하는 인간들의 영웅적인

29) 『조선문학』에 소개된 국제 평화상 수상자들은 요하네스 베히(Johannes Becher), 귀모루(Guo Moruo), 조르주 아마도(Jorge Amado), 하워드 파스트(Howard Fast), 파블로 네루다(Pablo Neruda), 안나 제거스(Anna Seghers), 레온 크루츠클스키(Leon Kruczkowski), 일리아 에렌부르크(Ilya Ehrenburg)를 포괄했다.

30) 『조선문학』에 작품이 일부 번역 소개된 평화상 수상자들은 뭉크 라지 아난드(Mulk Raj Anand), 나짐 히크메트(Nazim Hikmet), 귀모루, 하워드 파스트, 파블로 네루다, 안나 제거스, 일리아 에렌부르크, 모니카 펠튼(Monica Felton), 마이클 골드(Michael Gold)가 있다.



투쟁이 보여주었듯, 평화란 유럽과 아시아를 포괄하는 모든 인류가 공유하는 개념이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었다는 점이다. 전쟁의 비극은 근대인이 공유하는 공통된 역사적 경험이며, 그러한 비극을 극복하는 부단한 과정에서 새로운 승리의 역사가 기록되어왔다는 논리가 전후 문학의 기본 주장으로 확인된다.

전쟁의 주제는 여전히 전쟁 경험이 생생한 상황에서 이를 치유하는 한편 한국전쟁에 대한 권위적 공식서사의 구축을 통해 복구 건설에 집중해야 했던 당대 맥락에서 전후 북한 문학에서 매우 중요했다. 전시 경험과 영웅적 투쟁에 관한 내용은 전쟁에 따른 희생과 고통을 반영하는 한편 또한 과거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미래에 대한 방향을 찾아야 했다는 점에서 높은 수요가 존재했다. 전쟁 경험의 재현과 평가에서 소비에트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기본틀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전쟁 문학의 기본틀, 즉 “조국수호전쟁” 시기 소비에트 문학의 체계는 북한 전쟁문학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sup>31)</sup> 소비에트 사회주의 리얼리즘에 기반한 공통의 문예창작 방법론은 이를 공유하는 소련 사회주의 문학계는 물론 동유럽의 다른 인민민주주의 국가 문학계와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했다.

『조선문학』에 등장한 이 시기 한국전쟁 관련 논의에 따르면, 한국전쟁에서 치른 대가는 북한 주민들만의 고통이 아니라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인류의 공통된 역경이 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은 높은 이상으로 무장한 평화 애호 인민의 최전선이었다. 북한 인민들과 다른 평화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인민들은 인류에 대한 폭력에 대항해 역사적인 연대를 구축한 것이다. 이러한 서사는 북한을 방문해 전쟁 이후 재건의 현장을 본 다른 사회주의국가 작가들과 북한 작가들의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31) 윤세평, “인민군대의 형상화를 위하여,” 『조선문학』, 1955년 2월호; 저자불명, “문학에 있어서의 전쟁 껍데기”; 신동철, “작가와 군사적 주제”; 엄호석, “인민군대와 우리 문학,” 『조선문학』, 1958년 2월호.

나타났다.<sup>32)</sup> 한국전쟁의 재현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의 대의에 모순되지 않게 전개되었다.

## 2. 전후 평화적 사회주의건설과 사회주의 친선

1950년대에 북한 작가들이 가장 활발히 다룬 주제 중 하나는 사회주의 친선과 이에 기반한 전후 북한 사회주의건설의 주제였다. 한국전쟁은 제국주의 미국과 자본주의 동맹국들에 대항하는 세계 평화수호의 최전선으로 그려졌고, 한국전쟁 이후 평화적 복구건설에서 사회주의 우방의 다양한 원조로 이어졌다. 3년간의 전투가 중단되고 제대군인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파괴된 조국의 평화적 재건 프로젝트가 국가의 우선과제가 되었다. 사회주의권이 제공한 원조, 지원은 1950년대 북한 언론에서 광범하게 다뤄졌다. 『조선문학』에는 전후 사회주의건설의 선행 경험을 가진 동구권 인민민주주의 국가들을 방문한 북한 작가들과 복구 중인 북한을 방문한 소련과 동구권 작가들에 의해 다양한 여행기, 시, 단편 소설, 수필이 출판되었다.<sup>33)</sup> 유라시아를 넘나든 이러한 작가 집단들의 친

32) 브. 포름바큐(V. Porumbacu), “이야기,” 『조선문학』, 1954년 4월호, 니콜라 바푸사로브(Nikola Vaptsarov), “력사,” 『조선문학』, 1954년 9월호, 이완 밀체브(Ewan Milchev), “조선 사람아, 손을 다오!,” 『조선문학』, 1955년 1월호. 루마니아 친선 방문에 근거한 정하천의 “조선의 마음” 외 시초, 체코슬로바키아 기행에 기초한 한명천의 “체코슬로바키아 시초”는 특히 한국전쟁의 비극을 양차대전을 겪은 유럽의 전쟁 기억과 동질한 근대적 경험으로 서술하는 당대 북한 작가들의 인식을 대표적으로 드러낸다. 김태경, “1950년대 북한의 전쟁과 평화 재현,” 북한연구학회 춘계학술회의 발표논문집 (2019) 참조.

33) 1955년 『조선문학』에 실린 막스 짐메링(Max Zimmering)과 조령출의 수필과 시는 이러한 전후 북한과 사회주의 친선 국가 사이의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마치 최근 강한 유대 관계를 맺은 친구들 사이의 대화로 읽히는 두 인민민주주의 작가들의 시는 전후 사회주의건설을 구성하는 하나의 틀이 존재했음을 시사한다. 이에 대해서는 김태경, “1950년대 북한의 전쟁과 평화 재현.”

선 교류에 기반한 작품들을 통해 전후 재건의 시급한 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회주의 친선의 맥락에서 당시 평화의 주제가 어떻게 재현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북한 작가들과 그들의 사회주의 형제들에 의한 여행기 문학에서 우선 확인 가능한 것은 공유된 소련 사회주의건설의 기본 원형에 기초해 재건이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공장, 협동농장 등 경제부문, 평양 도심의 경관 복구, 심지어 문화 영역의 재건에 이르기까지 소비에트 모델의 역할은 방대했다. 그러나 소비에트 원형의 존재가 북한의 상황에 대한 적용과정에서 독자적인 변용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소비에트 원형은 서로 다른 나라의 인민들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공통분모로 작용했다. 3년간의 전쟁 후 재건 기간 동안 소비에트 사회주의와 인민민주주의 건설의 일반적 문법은 북한 인민들과 사회주의 우방의 인민들이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배울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하나의 공유된 문법은 당대 ‘평화의 마음’을 드러내는 한편 동시에 구성했을 친선방문 작가들의 기행문학, 다양한 형태의 번역문학, 또 국제 정세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정치적 교양을 제공하는 평론문학에 이르기까지 그 틀이 발견된다.

1958년 3월호 『조선문학』에 실린 번역작가 박영근의 정론 “력사의 종소리”는 사회주의권에 공유되는 보편적 언어가 어떻게 북조선의 문예계 토양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렸는지를 대표적으로 보여준다.<sup>34)</sup> 시작과 끝을 새로운 ‘력사’의 시간대를 살고 있음을 상징하는 협동조합의 종소리로 열고 맺는 이 정론은 그 종소리에 다시 프락또르 소리를 곁치며 “모든 것이 평화의 음향”이라고 평화=건설의 테마를 강조한다. 정론은 전년도인 1957년 11월, 러시아의 10월 혁명 40주년을 기념한 각국 공산당들의 “모스크바 회의 선언”을 중요하게 다루며 이 현재적 선언의 계보로, 한 세기

34) 박영근, “력사의 종소리,” 『조선문학』, 1958년 3월호.

이전 1843년 “공산당 선언”, 1917년 혁명 승리 후 레닌이 서명한 “평화 선언”을 위치시킨다. 동시에 모스크바 회의 선언들을 “현대 전쟁의 가장 가혹한 시련을 겪고 뒤이어 거창한 평화 건설에 일어 선 조선 인민”이 얼마나 높은 긍지감과 자부심으로 바라보는가 제시하며 “조선적 맥락”에 ‘평화적 로력’, ‘애국적 건설’이라는 국제주의적으로 공유된 틀을 안착시킨다.<sup>35)</sup> 박영근의 정론은 문예 조직적 측면에서 볼 때, ‘해빙기’ 소련 문예계의 변화된 담론을 상대적으로 열린 틀에서 수용한 일련의 흐름과 맞닿아 있다. 박영근 자신이 2차 조선작가대회에서 번역창작의 질적 강화를 강조한 번역문학의 중진이었고, 한국전쟁 직후 문단에 대한 독자 요청 중 “좋은 번역시들”에 대한 요구가 살아 있었다는 점은 평화=건설, 평화적 건설을 뒷받침하는 사회주의적 친선,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에 대한 믿음이 뚜렷한 ‘평화의 마음’을 가능하게 했던 1950년대 문학계의 조건이었다.<sup>36)</sup>

35) “공산주의자들은 자기 나라의 가장 열렬한 애국자로서 민족의 독립과 해방을 위하여 침략자를 반대하는 투쟁에 제일 많은 피를 흘렸다.”는 박영근의 사회주의 애국주의적 인식에서 2차 대전시 총살당한 불란서 공산주의자, 백두의 밀림에서 민족 해방을 위해 싸운 조선 공산주의자, 조국해방전쟁에 적 화구를 막은 “박 원진 영웅,” 체코 인민의 아들이자 공산당원 작가 “울리우스 푸치크”는 모두 하나의 ‘력사’의 길에 서 있다.

36) 박영근, “번역 문학의 발전을 위한 제 문제,” 『제2차 조선 작가 대회 문헌집』 (평양: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6); “외국 문학의 출판 사업 개선을 위하여,” 『조선문학』, 1956년 9월호; 김정숙, “좋은 번역시들을!,” ‘편집부에 온 독자의 편지,’ 『조선문학』, 1954년 5월호, p. 152.

#### IV. 탈식민 해방투쟁의 지속으로서 평화 : 통일투쟁과 제3세계 해방

1958-1959년은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조선화”, 즉 북한 문학계에서의 사회주의 리얼리즘 원형의 토착화에 있어 매우 핵심적인 시기였다. 이 기간 문학예술 분야에서 일어난 중요한 정치적 사건은 “부르주아 사상잔재에 대한 투쟁”이다.<sup>37)</sup> 1958년 김일성의 연설을 계기로 부르주아 잔재를 청산할 데 대한 동원이 강조되고 문예계도 혁명적 열정과 사회주의 애국주의로 스스로를 재무장해야했다.<sup>38)</sup> 조선작가동맹의 조직적인 지도로 모든 장르의 문학 작품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부르주아 사상잔재 투쟁의 관점에서 기존 작품과 공연을 검열되고, 문예 조직적 차원에서 새로운 조치들이 취해졌다. 예를 들어, 『조선문학』 편집위원회와

37) 1950년대 후반 조선로동당 내 갈등은 1956년 “8월 전원회의 사건”을 계기로 기존의 정파연합, 권력분점적 구도에서 연안계, 소련계를 배제하는 김일성 중심의 만주파, 갑산파 독점 구도로 변화했다. 당내 권력투쟁의 결과가 지방 당 대열 및 지방 인민위원회에 이르는 각급 단위의 인적 재편에 이르는 과정은 1959년 말까지 진행되었다. 서동만, 『북조선 사회주의체제성립사 1945-1961』 (서울: 신인, 2005), pp. 767-782, 875-887. 국내정치적 변화는 1958년 한국 내 미국 전술 핵무기 배치 등 미국 동아시아 전략의 진전과 함께 중소 균열의 심화라는 대외 정치적 맥락과 맞물려 있었다. 북한은 흐루쇼프의 ‘수정주의’에 대항하는 중국의 주변국, 아시아 사회주의 연대를 실현하는 데서 전략적 중요성을 가졌다. 1958년 3단계에 걸쳐 진행된 중국인민지원군 철수를 전후로 북한은 중국과의 ‘반수정주의’ 이념적 연대, 자력갱생과 대중동원을 강조하는 경제적 교류협력을 심화했다. 최명해, “북중 동맹조약 체결에 관한 소고,” 『한국정치학회보』, 42집 4호 (2008); 이상숙, “1958년 북한주둔 중국인민지원군 철수의 원인과 영향: 북한의 대중국 협력 확대와 대중동원 경제노선 강화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13권 1호 (2013).

38) 김재용, 『북한문학의 역사적 이해』 (서울: 문학과지성사, 1994); 김재용, 『분단 구조와 북한문학』 (서울: 소명출판, 2000).

관련해, 잡지 각 호 맨 마지막에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편집위원회 위원들의 명단을 공개했던 기존의 관습에서 “조선 문학 편집 위원회”라는 하나의 집단적 명의만 내는 것으로 대체하는 두드러진 변화가 있었다.<sup>39)</sup> 이는 상징적으로 창작 및 편집에 대한 집단주의적 경향이 강화된 새로운 흐름을 보여준다.

혁명적 경각심과 사회주의 애국주의를 요구하는 이 변화하는 맥락에서, 평화를 주제로 한 재현 또한 새로운 방식으로 나타났다. 이 다른 방식은 물론 완전히 새로운 의미의 전혀 다른 경로라기보다 “조선화된”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또 다른 방식이었다. 이러한 재현들은 적극적으로 제국주의 투쟁을 수행하는 탈식민 국가들의 광범한 연대를 우선순위로 주장했다. 여기서 우리는 1950년대 후반 평화 만들기(peacemaking)에 대해서도 다른 두 가지 논리의 공존을 보게 된다. 한편으로 평화는 정전을 배경으로 전후 사회주의 재건과 일치했다. 이 서술에서 전후 사회주의건설 사업은 국가의 최우선과제로서 강조되고 위에서 보듯 재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외부의 지원, 사회주의 친선이 중심적 위치를 차지했다. 다른 한편으로, 평화는 민족해방과 통일 임무를 완수하는 투쟁이 궁극적으로 쟁취하게 될 가치였다. 이러한 평화의 재현에서 국제주의적 연대의 방향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의 탈식민 국가들을 포괄하는 이른바 “제3세계”로 전환되었다. 또한 평화에 대한 수사에서 민족의 해방, 독립과 함께 통일의 의제가 동일선상에서 중요하게 제기되면서, 한반도의 분단에 대해서는 미국의 “식민지 통치하” 남반부의 해방과 통

39) 『조선문학』 1958년 9월호까지는 편집위원회 밑에 주필, 편집위원의 성명을 제시하던 관례가 존재했다. 1958년 9월호는 주필 박용걸, 편집위원 김순석 김승구 서만일 신구현 전재경(부주필) 조령출을 표시했지만 10월호에서는 편집위원회만 등장한다. 편집위원회의 변화에 대한 기존 연구로는 김성수, “선전과 개인승배: 북한 『조선문학』의 편집 주체와 특집의 역사적 변모,” 『한국근대문학연구』 32집 (2015) 참고.

일의 과제가 강조되었다.

### 1. 한반도적 맥락에서의 평화로서 통일: “조선을 생각하는 마음”

1950년대 북한의 두 ‘평화의 마음’이 공존할 수 있던 연결고리는 분단 된 남반부의 탈식민 해방과 통일의 인민적 염원이었다. 반드시 주목해야 할 사실은 Ⅲ.에서 살핀 정전과 사회주의 친선에 기반한 평화적 건설을 노래한 재현들이 분명히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의 보편적 문법을 공유 하면서 한반도적 맥락에 이르러 해방과 통일의 사명을 결코 빠뜨림 없이 강조한다는 점이다. 정하천과 한명천의 기행 시초, 조령출과 째메링그의 서로의 수도를 그린 시, 빠르웬제브의 조선 인상기와 박영근의 정론에 이르기까지 모든 재현이 반도 남단의 미제국주의 점령으로부터 해방과 통일 독립국가 수립의 현재적 과제를 노래한다. 시 “조선의 마음”에서 두 나이강 철교로 루마니아-불가리아 국경을 넘으면서도 “어디를 가도 한 시인들 잊을 수 없음=조선을 생각하는 마음”이라 노래한 것은 정하천 시인의 심정만이 아니라 1950년대 조선 사람들의 ‘평화의 마음’이었던 것이다.<sup>40)</sup> 또한 이는 조선을 생각하는 조선 바깥에 존재하는 범사회주의권 사람들의 마음이기도 했다. 이렇게 공통된 “조선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능하게 한 기반은 바로 세계평화운동은 물론 그 평화운동의 한반도적 ‘번역’인 통일운동의 주체로 호명된 인민이었다. 인민은 “제국주의”, “반민주주의” 진영의 전쟁 책동과 압제로부터 평화와 민주를 염원하고 그 수호에 하나같이 일어서는 주체로, 세계평화옹호운동과 통일운동 사이의 괴리를 사실상 없게 하는 공통의 기반이었다.<sup>41)</sup>

40) 정하천, “조선의 마음,” 『조선문학』, 1957년 4월호.

41) 1950년대 북한 문학에서의 인민-독자 형성에 대해서는 Tae-Kyung Kim, “The Making of the “Reader-people” in the 1950-1960s North Korean Socialist Literature,”

조선로동당 제3차 대회에서 김일성 주석의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연설이 있었고, 이 연설은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선언”으로서 『조선문학』에서도 다양한 작품, 평론에서 다뤄지며 당시 북한 사회의 열렬한 반향을 전했다. “조선 민족은 하나이다!”를 천명한 이 “선언”에서 호명한 민족은 곧 인민의 얼굴을 한 이들이다.

아, 이 믿음, 이 부름 앞에  
어찌 물과 불이 있으랴, 장벽이 있으랴,  
그로하여 우리는 백전 백승의 전사들이며  
그로하여 크낙한 앞날을 가진 인민이어나,

황금빛 쇠물이 폭포수로 내리는 용광로 앞에서나,  
뜨락또르 달리는 전야, 풍어기 날리는 바다에서나,  
피에 젖은 부두, 항거의 불길 높은 거리에서나,  
산악 같이 일어선 임진의 후에, 3.1의 아들딸들은,

3천만의 억세인 팔뚝으로 적어 넣으리,  
조국의 력사 금빛 노을 비끼인 폐지 우에,  
겨레의 사무친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 날자,  
우리 조국이 통일되는 그 날자를!

그리하여 우리의 귀한 후손들에게  
가장 값높은 유산 물려 주리,  
하나로 이어진 인민 조국,  
꽃피여 무르익는 3천리 강토를!

오늘 3차 당 대회 선언을 받들고  
다시 한번 3천만의 의지와 념원으로 말하노니,  
아득한 옛날부터 조선 민족은 하나였고  
영원한 미래까지 조선 민족은 하나이리라!<sup>42)</sup>



3차 당대회의 선언에 고무된 박산운의 시 “어머니에게”에서도 “-조선은 조선 사람에게!/조국의 통일을 방해하는 원수들로 하여금/인민의 이 참된 목소리를 듣지 않을 수 없게 하라./조국의 자유와 영예를 위하여 일어나라./”는 김일성 광장에 운집한 목소리를 자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어진 이웃과 이웃들에게/어머니를 가진 아들 딸들에게/남조선에 사는 모든 형제들에게!” 전한다.<sup>43)</sup> 한반도적 맥락에서 인민의 ‘평화’의 바람이 곧 해방과 통일을 통해 성취되는 것이었다면, 1950년대 후반 북한의 ‘평화’ 재현에서 평화애호인민의 목소리는 다음에서 확인할 터 큰 국제주의적 연대, 탈식민 해방투쟁에 결속된 모든 피압박민족들의 연대로 확장된다.

## 2. 제3세계 탈식민 해방투쟁의 국제주의 연대로서 평화

1950년대 중후반부터 친선 방문, 기행 문학은 기존 사회주의 및 인민민주주의 국가들에서 “제3세계”의 탈식민 국가와의 상호작용을 중요하게 다루는 방식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관심의 초점은 점진적이지만 확실하게 소련과 동유럽 형제국들로부터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신생 독립 국가들과의 국제주의적 연대로 이동했다. 1954~1955년에 『조선문학』에 나타난 사회주의 친선,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에 대한 강조는 이제 베트남과 같이 민족해방을 위해 제국주의 세력과 고군분투하는 나라들과의 연대에 대한 재현으로 다양화되었다. 1960년대 초중반 국가의 독립과 번영을 위한 반제해방투쟁은 국제주의적 연대를 형성하고 공고화하는 데 최우선 목표로 강조되었다. 그러나 1950년대 후반에는 아직 소련 및 동구권과의 친선과 이에 기반한 평화적 건설, 그리고 제3세계를 아우르는

42) 홍종린, “조선민족은 하나이다!-조선 로동당 제3차 대회 선언을 받들고-,” 『조선문학』, 1956년 5월호, p. 5.

43) 박산운, “어머니에게,” 『조선문학』, 1956년 7월호.

기치로서 민족해방투쟁을 통한 진정한 평화의 성취라는 상충되는 방식의 재현이 공존하는 양상을 볼 수 있다. 이 시기 북한 작가들의 재현은 동시대인들과 이러한 두 가지 평화의 개념을 소통하는 재현들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준다.

1958년 7월호 『조선문학』에 실린 정하천의 “인터나쇼날-제4차 세계 직맹 대회에서-” 외 4편의 시는 이제 사회주의 친선과 건설의 ‘평화’에 한정되지 않는, 탈식민 민족해방투쟁에 복무하는 제3세계 인민들의 ‘평화’를 노래한다.

소련이여도 좋았다.  
조선에서 왔거나,  
혹은 아프리카에서 왔거나,  
또 혹은 브라질의 부두에서 왔거나,  
우리는 불렀다. <동무!>라고  
그러면 그것은 인사를 대신하는 말.<sup>44)</sup>

자기 인민이 속한 나라의 해방투쟁이라면 그 어느 곳이든 이제 해방투쟁=평화 재현의 공간이 되었다. 4차 세계 직맹 대회 방문을 다룬 정하천의 시들은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있어야 하는가?/식민주의자들이여, 돌려 내라! 나의 마치를/돌려 내라! 모든 잃은 것을, 나의 삶을,” 외치는 아프리카의 한 대표의 토론, 헌병의 포격에 쓰러진 시체들을 넘어 “거리도 광장도 뒤흔들리게/가슴 뜨거운 노래 부르며.” 행진, 투쟁한 ‘인터나쇼날’의 기억에 대한 큐바 대표의 토론, 빼앗긴 “알제리아” 인민들이 불란서 압제자들을 “피눈물로 땅’바닥을 적신/그대 선조들의 이름으로/그대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으로/기쁨을 모르고 자란/그대 아이들의 이름으로/그리고 또한 평화와/그대 자신들의 이름으로.” 심판하고 새로운 미래를

44) 정하천, “동무!,” 『조선문학』, 1958년 7월호, p. 49.

열고 말리라는 알제리 대표의 토론을 형상화했다. 연시의 마지막에 다다르면, “모스크바에서 온 형제”, “북경 친우”, “루마니아와 체코의 벗들”, “불란서의 기관사”, “피라미트와 수에즈의 주인”, “영웅의 땅 알제리아의 형제”, “얼굴 검은 케니아의 친우”, “멕시코와 부라질의 벗들”이 모두 함께 만난다. 그리고 이 모든 평화애호인민과 같은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날 수 없는 유일한 얼굴을 생각한다.

만나서 우리는 이야기했다  
 한동네에 사는 이웃들처럼,  
 시국들에 대하여 고향에 대하여,  
 서로의 마음 하나입에 대하여,  
 나라도 말도 다들지언정  
 그 마음 평화이며 자유임에 대하여  
 그러나 그만은 오지 못했구나!  
 그만은 여기에 없구나!  
 오매에도 잊지 못할 얼굴  
 눈앞에 그림처럼 선한데  
 만날 수 없구나 나의 겨레  
 내 나라 남쪽에 살고 있는 그만은.

...

더 무엇을 말할 것이냐!  
 그대를 이미 알고 있거니  
 그 이름 조선 오직 하나이여도  
 남북으로 헤어져 만날 수 없는 조선

하여 나는 소리 높이 웨친다,  
 조선에서 멀고먼 이 도시에서도  
 억누를 수 없이 설레이는 마음  
 세찬 파도가 되어  
 아메리카여!  
 조선에서 물러가라고.<sup>45)</sup>

정하천의 “아메리카여! 조선에서 물러가라고”라는 외침은 1950년대 후반 북한의 ‘평화 문학’이 탈식민 해방전쟁의 관점에서 평화에 대한 질문을 어떤 방식으로 다루고 있는가를 잘 드러낸다. 엄호석의 1957년 상반기 서정 시초 평론에 따르면, 그가 한명천, 정하천 등의 우방 방문 기행 시초들에 대한 평가에서 지적한, “두 개의 시대”, “두 개의 세계 즉 사회주의와 평화의 진영, 제국주의와 전쟁의 진영”의 대립이라는 “우리 시대”의 특징이 평화 담론과 실천을 점차 정전 이후 건설로서의 평화보다 민족해방투쟁의 지속을 통해 쟁취하는 평화에로 추동했다고 볼 수 있다.<sup>46)</sup> 엄호석은 정하천의 “조선의 마음” 시초에 대해 백인준의 “얼굴을 붉히라 아메리카여”의 계보에 속하는 “평화 옹호 투사”의 정론시라고 평하면서 “조선 문제에 대하여 쓰면서 동시에 인류의 운명 문제에 대하여 쓰라. 국제 무대의 중심에 서서 우리 시로부터 전쟁을 반대하는 평화 옹호 투사의 정론적 빠포쓰가 더욱 힘차게 울려 나오게 하라”고 요구한다.<sup>47)</sup> 이어 ‘평화’가 전 인류, 전 인민이 주체가 되는 탈식민 해방투쟁, 제3세계의 국제주의적 연대의 문제로 되는 중요한 연결고리로, 모든 평화 문제의 공통 대상으로서 “제국주의 미국”에 대한 비판이 지적된다.<sup>48)</sup> 엄호석의 평론은 III.에서 살펴본 정전을 강조하고 전후 평화적 사회주의건설과 그를 지지하는 사회주의 친선의 평화에 대한 모티브를 다룬 정하천, 한명천 등의 시초를 다루는 한편으로 이 평화가 궁극적으로 IV.에서 검토한 “미

45) 정하천, “조선에서 멀고 먼 이 도시에서도 -라이프치히에서-,” 『조선문학』, 1958년 7월호, pp. 53~54.

46) 엄호석, “시대와 서정 시인,” 『조선문학』, 1957년 7월호, p. 137.

47) 엄호석, 위의 글, p. 138.

48) “미제는 열병적으로 전쟁을 준비하면서 핵 무기를 휘둘러 대며 그것을 서부 독일, 대만, 류큐와 함께 남조선에도 반입할 것을 기도하고 있다. 원수들이 기도하는 새로운 전쟁은 몇 개의 국경이 침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 인류의 운명과 관련되어 있다.” 엄호석, 위의 글, p. 138.

제”에 대한 저항을 공통분모로 하는 탈식민 민족해방투쟁의 과제, 그 실현을 위한 제3세계 연대로 확장, 전환되는 기초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sup>49)</sup> 1950년대 후반 북한의 ‘평화의 마음’은 전후 평화적 건설로서의 평화와 탈식민 민족해방투쟁의 지속으로서의 평화, 두 가지 재현의 공존을 반영하는 한편, 점차 미완의 민족해방투쟁 실현을 위한 제3세계 인민들의 국제주의 연대와 한반도 맥락에서의 통일투쟁을 강조하는 ‘평화’가 정전과 전후 건설에 기반한 일시적 ‘평화’에 우선하는 전환을 보여준다.

## V. 결론을 대신하여

1950년대 후반 북한의 ‘평화의 마음’은 국가의 독립과 통일을 향한 정의로운 투쟁을 지지하면서 보다 호전적인 함의를 가지게 되었다. 한국전쟁을 진정한 평화를 위한 전쟁으로 인정한 전제 위에서 전후 평화적 사회주의건설에 초점을 맞춘 폭력의 종식으로서 ‘평화’를 추구하던 데서, 미해결 과제로서의 통일 투쟁을 포괄하는 민족해방투쟁의 이상을 강조하는 ‘평화’에로 논의의 흐름이 전환된 것이다. 이러한 1950년대 두 개의 평화 개념의 공존, 나아가 후자로의 점진적 전환은 사회주의 친선에 대한 기존 입장에서 ‘제3세계’의 탈식민 민족해방투쟁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국제주의를 확장하려는 북한의 대외적 태도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두 ‘평화의 마음’은 동시기 공존하는 서로 다른 풍경을 접하는 동시에 자기

<sup>49)</sup> 엄호석은 정하천, 한명천 시초를 소개하며 이 시들의 주제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의 강화에 대한 우리 시대의 요구에 대답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엄호석, 위의 글, p. 134.

재현을 통해 구성하는, 문학계 행위자들의 조직적 진화 과정과 맞물려 이해해야 한다. 1950년대 두 개의 평화 재현은 그 재현을 담당한 ‘인간 정신의 기사’ 집단으로서 사회주의 문학계가 형성되는 과정 자체와 함께 전개되었다는 점에서 ‘사상 개조’에 임하는 행위자들의 조직적 진화에 대한 이해는 당대의 ‘마음체계’에 대한 파악에 필수적이다.

1950년대 『조선문학』에 나타난 평화의 재현 방식에 대한 탐색은 과거에 존재했던 다양했던 대안적 논리들을 다시 보여줌으로써 현재 진행되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유의미한 새로운 평화에 대한 상상을 확장하는 데 좋은 성찰을 제공한다. 특히 북한의 문학사에 존재했던 평화에 대한 재현들은 1960년대 후반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확립되며 전쟁과 평화에 대한 특정한 방식의 수사가 고정되기 이전의 북한에서 진행된 보다 다양한 논의를 보인다는 점에서, 북한 자신의 지성사적 유산에 바탕해 북한과 대화 가능한 새로운 평화 담론을 고민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다. 이와 함께 북한 외부에 대해서도 고정된 단일한 실체로서 북한을 상정하고 그 내부의 다양성과 변화의 가능성을 보지 못하는 한계에서 벗어나,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가능성을 섬세하게 읽는 과정에서 평화를 생각하고 믿는 기존의 다양한 방식을 재구성하는 한편 보다 균형적인 평화를 고민,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접수: 2019년 5월 1일 / 심사: 2019년 5월 29일 / 게재 확정: 2019년 6월 1일

## 【참고문헌】

- 구갑우. “북한 ‘핵 담론’의 원형과 마음체계, 1947-1964년.” 『현대북한연구』, 17권 1호, 2014.
- \_\_\_\_\_. “북한 소설가 한설야의 ‘평화’의 마음(1), 1949년.” 『현대북한연구』, 18권 3호, 2015.
- 권철근. “소비에트 전쟁문학의 흐름과 사회주의 리얼리즘.” 『외국문학연구』, 8호, 2001.
- 김성수. “선전과 개인승배: 북한 『조선문학』의 편집 주체와 특집의 역사적 변모.” 『한국근대문학연구』, 32집, 2015.
- \_\_\_\_\_. “사회주의 교양으로서의 독서와 문예지 독자의 위상-북한 『조선문학』독자란의 역사적 변천과 문화정치적 함의-.” 『반교어문연구』, 43권, 2016.
- 김재용. 『북한문학의 역사적 이해』. 서울: 문학과지성사, 1994.
- \_\_\_\_\_. 『분단구조와 북한문학』. 서울: 소명출판, 2000.
- 김정숙. “좋은 번역시들을!” ‘편집부에 온 독자의 편지.’ 『조선문학』, 5월호, 1954.
- 김태경. “제2차 조선작가대회와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조선화(Koreanization)”의 시작.” 『문화와정치』, 4권 4호, 2017.
- \_\_\_\_\_. “북한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조선화(Koreanization)’: 문학에서의 당의 유일 사상체계의 역사적 형성.”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박사논문, 2018.
- \_\_\_\_\_. “1950년대 북한 작가들의 평화 재현.” 북한연구학회 춘계학술회의 발표논문집, 3월 29일, 2019.
- 김태우. “냉전 초기 사회주의진영 내부의 전쟁·평화 담론의 충돌과 북한의 한국전쟁 인식 변화.” 『역사와 현실』, 83집, 2012.
- \_\_\_\_\_. “냉전 평화론의 사생아: 소련과 북한의 한국전쟁 ‘북침’ 시나리오 조작의 정치적 배경과 과정.” 『통일인문학』, 64권, 2015.
- \_\_\_\_\_. “1948-50년 사회주의진영의 평화론과 평화운동의 동아시아적 수용과 변용: 국가별 사례 비교.” 『동북아문화연구』, 58집, 2019.
- 김학재. “‘냉전’과 ‘열전’의 지역적 기원-유럽과 동아시아 냉전의 비교 역사사회학.” 『사회와역사』, 114권, 2017.
- 노경덕. “냉전사와 소련연구.” 『역사비평』, 101호, 2012.
- 바푸싸로브. “력사.” 『조선문학』, 9월호, 1954.

- 박산운. “어머니에게.” 『조선문학』, 7월호, 1956.
- 박영근. “번역 문학의 발전을 위한 제 문제.” 『제2차 조선 작가 대회 문헌집』. 평양: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6.
- \_\_\_\_\_. “외국 문학의 출판 사업 개선을 위하여.” 『조선문학』, 9월호, 1956.
- \_\_\_\_\_. “력사의 종'소리.” 『조선문학』, 3월호, 1958.
- 브. 포름바큐. “이야기.” 『조선문학』, 4월호, 1954.
-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 1945~1961』. 서울: 선인, 2005.
- 웨. 쉘첸코. “인류의 머리 우에 평화를!” 『문학신문』, 8월 7일, 1959.
- 신동철. “작가와 군사적 주제.” 『조선문학』, 2월호, 1956.
- 아르까지 페르웬제브. “친우들과의 상봉.” 『조선문학』, 5월호, 1956.
- 엄호석. “시대와 서정 시인.” 『조선문학』, 7월호, 1957.
- \_\_\_\_\_. “인민군대와 조선문학.” 『조선문학』, 2월호, 1958.
- 역사문제연구소. 『1950년대 북한의 선택과 굴절』. 서울: 역사비평사, 1998.
- \_\_\_\_\_. 『한국전쟁에 대한 11가지 시선』. 서울: 역사비평사, 2010.
- 오성호. “제2차 조선작가대회와 전후 북한문학 - 한설야의 보고를 중심으로.” 『배달말』, 40권, 2007.
- 와다 하루키. 서동만 · 남기정 역. 『북조선: 유격대국가에서 정규군국가로』. 서울: 돌베개, 2002.
- 윤세평. “인민군대의 형상화를 위하여.” 『조선문학』, 2월호, 1955.
- 이상숙. “1958년 북한주둔 주국민민지원군 철수의 원인과 영향: 북한의 대중국 협력 확대와 대중동원 경제노선 강화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13권 1호, 2013.
- 이완 밀체브. “조선 사람이 손을 다오!” 『조선문학』, 1월호, 1955.
- 이우영 외. 『분단된 마음의 지도』.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2017.
- 이종석. 『조선로동당연구』. 서울: 역사비평사, 1995.
- 저자불명. “문학에 있어서 전쟁 쟁마.” 『세계문화소식』 『조선문학』, 8월호, 1955.
- 정용욱. “6·25전쟁 이전 북한의 평화운동.” 『역사비평』, 106권, 2014a.
- \_\_\_\_\_. “6.25 전쟁~1950년대 후반 북한의 평화운동.” 『역사와 현실』, 91권, 2014b.
- 정하천. “조선에서 멀고먼 이 도시에서도 - 라이프치히에서 -.” 『조선문학』, 4월호, 1957.
- \_\_\_\_\_. “동무.” 『조선문학』, 4월호, 1957.
- \_\_\_\_\_. “조선의 마음.” 『조선문학』, 4월호, 1957.



- 조명출. “백림이여.” 『조선문학』, 10월호, 1955.
- 청카이(程凱). “평화염원과 정치동원: 1950년의 평화서명운동.” 백원담·임우경, 『‘냉전’ 아시아의 탄생: 신중국과 한국전쟁』. 서울: 문화과학사, 2013.
- 최명해. “북중 동맹조약 체결에 관한 소고.” 『한국정치학회보』, 42집 4호, 2008.
- 한명천. “체코슬로바키아 시초.” 『조선문학』, 5월호, 1957.
- 한설야. “현대 조선 문학의 어제와 오늘.” 『조선문학』, 1월호, 1957.
- \_\_\_\_\_. “아세아 아프리카 작가회의와 관련하여.” 『조선문학』, 1월호, 1959.
- 홍종린. “조선민족은 하나이다!-조선 로동당 제3차 대회 선언을 받들고-.” 『조선문학』, 5월호, 1956.
- 황동하. “냉전에 대한 러시아의 반응-‘평화’를 투쟁의 언어로 만들기.” 『역사연구』, 34호, 2018a.
- \_\_\_\_\_. “냉전 초(1947-1953년) 소련 포스터에 나타난 ‘평화’ 이미지.” 『역사학보』, 238호, 2018b.
- Fast, Piotr. *Ideology, Aesthetics, Literary History: Socialist Realism and its Others*, Peter Lang: Frankfurt am Main, 1999.
- Kim, Tae-Kyung. “The Making of the “Reader-people” in the 1950-1960s North Korean Socialist Literature.” *Asian Perspective*, vol. 43, no. 4 (forthcoming).
- Mark, Eduard. “Revolution by Degrees: Stalin’s National-Front Strategy for Europe, 1941-1947.” Working Paper No. 31,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February), 2001.
- Zubkova, Elena, trans. and ed., Hugh Ragsdale. *Russia After the War: Hopes, Illusions, and Disappointments, 1945-1957*. London & New York: Routledge, 1998.
- ШЕВЧКЕКО, В. “ПОД НЕБОМ ЯПОНИИ.” СМЕНА, № 767. 1959.

## Two “Minds of Peace” in the 1950s North Korean Literary Representations

Kim, Tae-Kyung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Lee, Woo-Young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Koo, Kab Woo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 Abstract

This paper looks into the minds of “peace” in the 1950s North Korea via the representations of peace found in the Choson Munhak by the North Korean writers and their socialist brethren writers after the socialist friendship visits. This paper examines the literary representations that demonstrate the authors’ comparative viewpoint of war and the postwar socialist building in Eastern Europe and North Korea, as well as other Asian postcolonial states and North Korea. The writers’ efforts to bridge the histories on other parts of the globe to those of their own country shows diverse narratives of peace that had taken at least two different ways of signification and representation. On the one hand, peace, that is the ceasefire, was presented as the necessary condition for the peaceful construction of a socialist society and upheld its significance, while acknowledging its temporary state as an armistice. On the other hand, there was a view that did not hesitate to argue for a resolution on the war to establish a genuine, persisting peace against the global imperialist forces.

The diversity in the perceptions of peace and the gradual shift of significance to the latter sense of peace emphasizing national liberation and integration enlightens us as to how North Koreans developed their sense of peace, further giving the insight for new discourses/practices on peacemaking in the post-Cold War context.

Key words: Minds of Peace, Mind System, World Peace Movement, Korean Unification Movement, North Korean Literature, Koreanization

#### 김태경(Kim, Tae-Kyung)

“북한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조선화(Koreanization)’: 문학에서의 당의 유일사상체계의 역사적 형성”으로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박사졸업 이후 북한대학원대학교 연구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논저로는 “당(黨) 문학 형성으로서의 북한의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번역과 수용(1953-1957)”(2018), “제2차 조선작가대회와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조선화(Koreanization)’의 시작”(2017), Jai-Chul Heo · Jae-Bong Lee and Tae-Kyung Kim, “Networks Between Korean News Media and Korea Specialists Abroad: Social Network Analysis on Korea Specialists in the United States, China and Japan”(2016) 등이 있다.

#### 이우영(Lee, Woo-Young)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현재 북한대학원대학교 SSK남북한마음통합연구단 단장이다. 주요 논저로는 “남북정상회담과 사회문화교류·통일정책연구”(2018), 김소영 · 이영민 · 이우영, “교류협력 단계별 북한 직업훈련 실행 시나리오 구축 방안”(2018), 양문수 · 이우영, “북한주민과 중국주민의 마음에 대한 비교연구”(2017), 최선경 · 이우영, “조선민족 개념의 형성과 변화”(2017) 등이 있다.

#### 구갑우(Koo, Kab Woo)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평창 임시 평화체제에서 판문점 선언으로”(2018), “평창 ‘임시평화체제’의 형성 원인과 전개: 한반도 안보딜레마와 한국의 ‘삼중모순(trilemma)’”(2018), “리영희의 ‘비판’과 ‘실천’으로서의 국제정치이론: 탈식민·탈패권·탈분단의 길”(2017), “The Discursive Origins of Anti-Americanism in the Two Koreas”(2017) 등이 있다.

